

2. 가입 효과

□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

-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·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
-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

□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

-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,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파생상품의 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등을 완화

□ 국제적 위상 제고

- 전 세계 16번째* 및 아·태 지역 6번째로 모든 정책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

* (미주) 미국, 온타리오, 퀘벡, 멕시코, (아태) 호주, 중국, 홍콩, 일본, 인도, 한국, (유럽) 영국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네덜란드, 이탈리아

3. 향후 추진방향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C7 가입을 계기로 상품파생 및 장외파생 등 파생상품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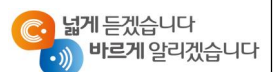
-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

□ 또한, 장외파생 관련 증거금제도 실무그룹(BCBS-IOSCO, WGMR), 규제 점검그룹(FSB, ODWG) 및 금융시장인프라 점검그룹(CPMI-IOSCO, MSG)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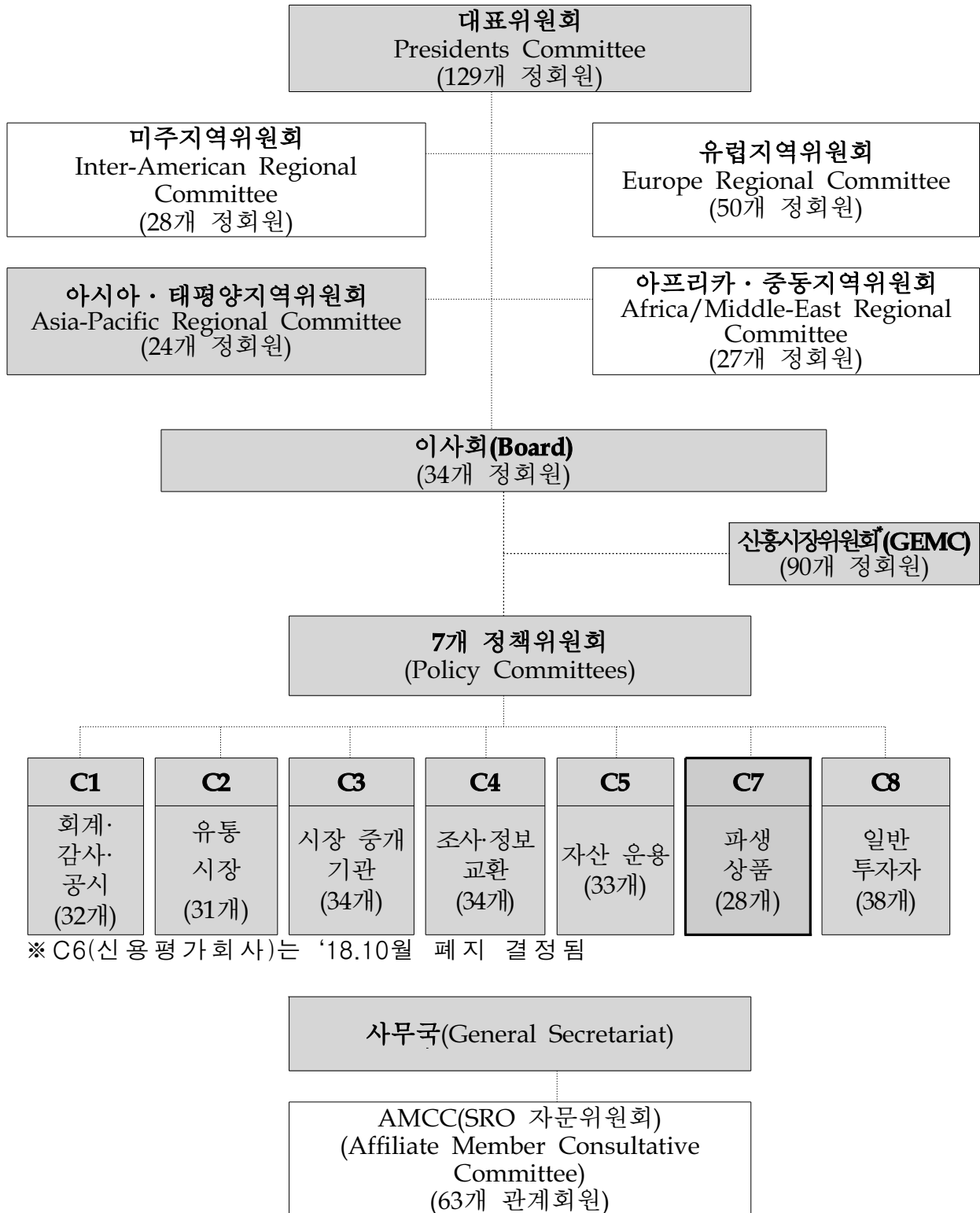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IOSCO 조직도



* 우리나라는 GEMC(Growth and Emerging Markets Committee)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, 17개) 멤버

※ 음영부분 : 금감원·금융위 가입